

원하시지 않았지만. 우리 고해신부님께서도 내가 떠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결국 인생은 시련이라고 말해주
셨어

.....

그래! 진정 고통스러운 시련이야!

“뭐라고?”

폴이 대꾸했네.

“술한 이유로 마음을 정했겠지만, 그중 어떤 것도 당신을
잡아두지 못했어요! 그래! 아직도 나한테 말하지 않은 것이
있나봅니다. 부자가 된다는 데 마음이 온통 끌리게 마련이
죠. 당신은 곧 새로운 세상에 가서 나한테는 더 이상 붙이지
않는 오빠라는 호칭을 줄 누군가를 찾겠죠. 아가씨께서는
그 오빠를 선택하시겠죠. 내가 줄 수 없는 태생, 내가 줄 수
없는 부를 가지고 있어 당신에게 걸맞은 그런 사람들 중에
서요. 하지만 더 행복해진답시고 가고 싶다는 곳은 대체
어딘가요? 당신이 당도하게 될, 당신이 태어난 곳보다 더
소중할 거라는 그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인가요? 당신을 사
랑해주는 식구보다 더 정이 넘치는 식구들을 어디서 만들
건가요? 어머니의 보살핌에 그렇게나 익숙해져 있으면서,
그 보살핌 없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요? 이미 나이가 들어
버린 당신 어머니, 어머니는 혼자서 어떻게 되겠어요? 식
탁에서도, 집안에서도, 당신에게 의지하곤 했던 산책길에
서도 더 이상 자기 곁에 있는 당신을 볼 수 없다면 말이에